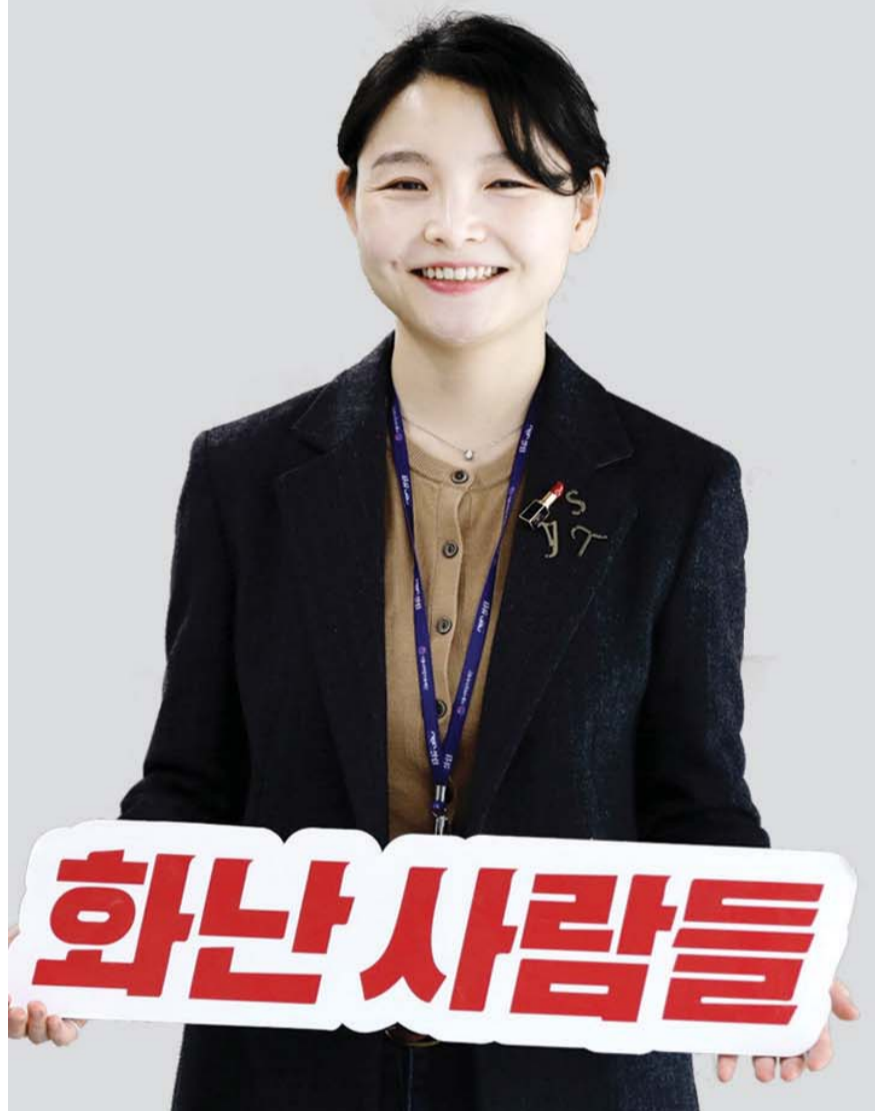


# 법조인 엘리트 코스 마다하고 피해자 위한 창업의 길로 “사소한 사건도 불이익 없도록... 법으로 함께 풀어내요”

## 3040 벤처 CEO 열전

###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최초 롱 대표

최초 롱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2013년 사법고시를 패스한 뒤 판사 임용을 위한 엘리트코스인 재판연구원까지 지낸 재원이다. 그가 갑작스럽게 화난사람들을 만들게 된 것은 05학번으로서 경험했던 ‘아고라 세대’ 덕이다. 온라인에서 각종 문제를 토론하고 뜻이 맞는 이들이 실제 행동으로 나서는 것에 익숙했던 최 변호사는 자연스럽게 화난사람들의 아이디어로 생각이 뻗었다.



5G 상용화 4년차, 가입자 수 2018만 9808명을 맞았다. 이동통신사 3사는 각 500만 명 이상 가입자 수를 확보한 상황이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5G 소비자 집단 소송 심리가 올해 본격화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소송을 제기한 5G 가입자 수는 2000여 명에 달한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인 곳은 바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이다.

2013년 사법고시 패스  
2018년 공동소송 플랫폼 설립  
3년간 97개 집단서 소송·탄원

사회를 흔든 사건이면 나타나는 공동 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2018년 최초 롱 변호사가 설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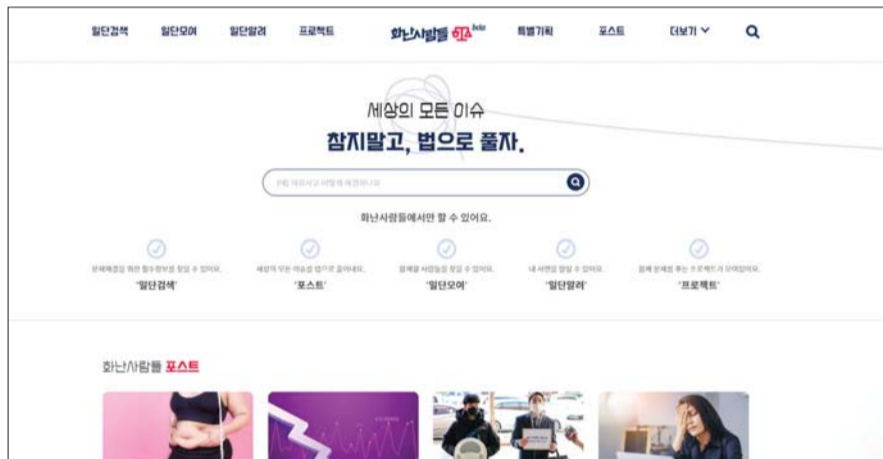
화난사람들은 중개플랫폼이다. 일반인이 화난사람들에 특정 사건·사고에 문제를 제기하면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모이고 일정 수가 모인 뒤 사이트에 가입한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수임한다. 화난사람들은 여기서 변호사에게 집단소송에 필요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료를 받고 제공한다. 만 3년여 기간 동안 화난사람들을 통해 총 97개 집단 소송과 탄원이 이루어졌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부터 유명인사인 성폭력 가해자로부터 비판댓글로 민·형사 고소를 받은 사건, 주식리딩방 사건, 메리츠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 등 전 영역에 걸쳐 피해자들이 화난사람들로 모였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식 법적 절차를 밟기 전 해결된 사건도 있다. 온라인 강의업체 스카이에듀가 프리패스 강의를 판매하며 특정 대학 진학시 100~300% 환급하겠다고 하고서 이를 지키지 않은 사건이 그렇다. 법무법인 오김스가 화난사람들을 통해 모인 피해자들을 대립해 사건을 수임한 후 환급 채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자 스카이에듀는 환급금 지급을 시작했다.



2020년 11월 공동소송 법률플랫폼 ‘화난사람들’과 정중재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등 공동 변호인단은 구글 인앱결제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앱 사업자를 대립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뉴스시



화난사람들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법의 허점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도 있었다. 미투(#MeToo) 이후 피해자의 권리와 관련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탄원’에는 5546명이 참여해 입법 청원에 들어갔다. 양육비 미지급 아동학대 적용을 위한 국민의견 제시에도 2467명이 참여했다.

### 주식·판매환급 등 다양한 사건 진행 올해 5G 소비자 집단소송 본격화 정보공유 등 콘텐츠 다양화 시도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참여한 피해자도 있지만 사건의 부정의에 분노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다. 어느샌가 집단소송과 관련된 한 플랫폼이

라면 ‘화난사람들’이라는 공식이 자리 잡았다.

최근 화난사람들은 콘텐츠 다양화를 시도 중이다. 집단 소송을 위한 플랫폼으로 있는 데서 넘어, 산재됐던 분쟁 해결 사례를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피해자 간 정보공유를 가능케 하는 커뮤니티 기능도 만들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겪지만 일반인으로는 알기 어려운 법률문제에 관한 콘텐츠도 발행 중이다.

최 변호사는 궁극적으로는 사소한 사건이라도 사람들이 법적인 불이익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일상생활 속에서 소액이어서, 피해자가 혼자인 듯해서 참고 넘어가는 일 없이 화난사람들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K-부스,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복적복적’

### >> 1면 ‘한국이 주도한 CES’서 계속

특히 ‘스크린 에브리웨어’를 실현할 수 있는 ‘더 프리스타일’과 갤럭시S21FE도 함께 공개하며 많은 호응을 이끌었다. ‘스크린 포 올’ 철학에 맞춘 솔라셀 리모컨과 에코패키지도 관람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삼성전자를 사랑하는 팬은 또 있었다. 바로 중국기업인 TCL과 하이센스다. 이들은 미중무역분쟁 심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잇따른 전시 포기 속에서도 적지 않은 규모로 부스를 구성하며 추격 의지를 숨기지 않았다. 이들 부스 공통점은 디자인이 삼성전자 부스를 모티브로 삼은 게 분명했다는 것.

다만 TCL이 공개한 ‘레이니아오 AR’은 위협적이었다. 레이니아오는 AR 안경으로, 영상을 보거나 메시지 확인,

가전제품 제어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대체 기기다. 다만 현장에서 직접 기능을 시연하지는 않아 출시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 ◆ 한류 열풍도 여전

CES2022의 또다른 관전 포인트는 한류였다. BTS가 현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현대차부터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 부스에서 BTS 음악소리가 자주 울려 퍼졌다.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BOE’도 BTS에 손가락을 얹었다. 따로 음악을 재생하지는 않지만,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콘셉트에 BTS ‘버터’를 재생해놓은 화면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K팝이 아닌 기술적으로도 한류가 대세였다.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물론이고, 두산그룹과 현대중공업이나 스타트업까지도 국내 기업 부스 인기가 월등

하게 많았다. 숫자와 규모 면에서도 한국 기업이 압도했지만, 기술적으로도 한국 기업을 넘어설만한 곳을 찾기 어려웠다.

소니와 보쉬 등 글로벌 주요 테크 기업들도 이미 한국 기업들이 상용화 단계로 접어든 전기차나 수소 스택, 전동화 모듈 등을 소개하면서 감흥을 주지 못했다.

### ◆ 합종연횡도 가속

올해 CES2022 발표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협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는 미디어 컨퍼런스에 마이크로소프트 울리히 오만 부사장을 세웠다. 아직 협력 약속도 하지 않은 관계지만, 울리히 부사장은 메타모빌리티를 라우드와 인공지능(AI)을 통해 이룰 수 있다며 자사의 솔루션 아주르가 큰 역할



CES 2022에 마련된 대구경북 공동관에서 기업과 바이어들의 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시

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도 MS와 협력을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태문 사장과 SK텔레콤 유영상 사장은 각각 하드웨어와 통신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땀레야 땀 수 없는 관계다. 이번 CES2022에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융합 서비스를 향한 의지를 다졌다.

국내 기업끼리만은 아니다. SK 박정

호 부회장과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 등은 켈릭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를 만났다. 최근 SK가 메모리뿐 아니라 AI 반도체 기업인 사피온을 새로 설립하고 ‘SK ICT’ 연합을 결성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상황.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협업을 통한 역량 강화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됐다.

/김재용 기자 juk@